

RaonAtti 4th Thailand

12월 보고서



미얀마 와 태국, 그 경계선에서 ...

12월 전체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싼캠프 YMCA	2 Korea Night 	3 Day off	4 Visa Trip
5 Visa Trip 미얀마 골든트라이앵글	6 Visa Trip Doi Tung	7 치앙라이 초등학교 	8 중간 보고서 +PPT+UCC 제작	9 태국스텝 &관계자 4기태국 팀중간보고	10 싼싸이 마을 컴백 	11 Day off
12 Day off 현주네 오빠 P'애와 함께 메조 놀러 감	13 치앙라이 대회 준비 -PPT 보조 -비디오촬영	14 6학년 -한지공예 -한국어수업 2학년 -그림수업 -체육수업	15 6학년 -체육수업 -한국어수업 2학년 -체육수업 -그림수업	16 -메조대학 관광학과 학생들에게 한국여행 소개하기 -나이트사파리	17 -태국 YMCA 스텝들과 함께 P'프렛 & P'너이 생일 축하 빅씨 마트 Chiang Dao 준비	18 Chiang Dao 
19 Chiang Dao 	20 P'디 & P'명 학교방문 중학교1학년 -한국노래 -한국어수업	21 1학년~3학년 -그림수업 -체육수업 4학년 -체육수업 중학교1학년 -배구	22 무대디자인& 페인트확인 싼캠프 YMCA 컴백! -장기자랑준비	23 YMCA 체육대회 	24 * 람팡 크리스마스축제 -한복/태권도복 입어보기 * 싘캠프 YMCA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	25 데리크리스마스 싼캠프 ymca 크리스마스파티
26 Mr.Norman + 람팡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하는 영어수업 여행계획회의	27 싘싸이마을컴백 1학년 -체육수업 6학년 -체육수업 중학교2학년 -한국어수업	28 1학년 /2학년 -체육수업 4학년 -탱탱볼 만들기 	29 12월보고서작성 4학년 -체육수업 5학년 -탱탱볼만들기	30 12월보고서작성 Happy New Year 선물교환 페인트 밀그림 그리기	31 무대 페인트작업 시작 	

Chirathiwat school



우리는 지난 달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간이 없이 수업이 주어질 때마다 체육수업, 한국어수업, 그림수업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달 보다 수업시간도 더 많아졌고, 가끔은 우리가 수업시간을 건의해서 진행하기도 하는 등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았다. 또한 지난달보다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준비한 교구를 사용하는 등 알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한지공예

* 협찬 : 한지와 빛

태국에 오기 전 한지공예업체로부터 협찬 받은 연필꽂이 만들기 세트를 이용해 6학년 아이들과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다. 아이들이 재미있어 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뼈대 만드는 작업에서 지루해하는 바람에 수업진행이 조금 힘들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한지를 뼈대에 붙이는 작업을 할 때부터 아이들도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임했다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많은 흥미를 보이셨다. 몇몇 선생님들은 완성품을 가져가기도 하시고 다음 수업시간이 언제인지 물어보기도 하셨다.



탱탱볼 만들기

지난 기수가 남기고 간 과학키트 중 하나인 탱탱볼 만들기 세트를 이용한 수업을 진행했다. 4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다른 학년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서로 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추가로 5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고 앞으로 시간이 된다면 다른 학년 아이들과도 함께 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도 탱탱볼 재료의 정확한 혼합 비율을 몰라 제대로 된 탱탱볼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아리랑-태극권도

12월 25일 공연을 예정으로 모집했던 아리랑합창단과 태권도반은 공연이 이뤄지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아리랑합창단

원래 20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지만 흥미가 떨어진 아이들이 빠지고 지금은 13명의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 처음에는 전통적인 느낌의 느린 아리랑을 가르쳤고, 그 후에 윤도현밴드가 편곡한 락버전의 빠른 아리랑을 가르쳤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따라와 주었고 우리가 내주는 속제도 꼬박꼬박 잘 해왔다. 그래서 예정보다 아리랑수업이 빨리 끝나게 되면서 우리는 추가로 소녀시대의 “Oh”를 가르치고 있다. Oh를 처음 가르치던 날, 뮤직비디오를 보여줬는데 아이들이 모니터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았다. 또한 아리랑합창단을 계기로 몇몇 선생님들이 아리랑에 관심을 보이셨고 학생들에게 아리랑 수업을 요청하기도 하셨다.



합창단 공연 (2011-01-06)



태권도 가족

태권도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15명의 학생들로 시작했다. 하지만 중학교 아이들이 여러 가지 학교 일을 도맡아 하느라 자주 빠지면서 나오지 않게 되었고, 초등학생 아이들 몇몇도 반복되는 동작에 지루함을 느꼈는지 잘 나오지 않게 되었다. 결국 지금은 5명의 정예멤버와 함께 태권도를 하고 있다.

애초에는 흥미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교장선생님께서 광저우 아시안게임의 태권도시범을 보시고는 그런 종류의 퍼포먼스를 원하셔서 품새 위주의 수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하루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가 비자트립과 크리스마스 준비 등으로 학교를 자주 비우게 되면서 수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아이들도 수업에 흥미를 붙이기 어려웠던 것 같다. 하지만 끝까지 남은 5명의 아이들과는 좀 더 친해졌고 한편으로는 태권도반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어서 고마움도 느끼고 있다.

정기적인 수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매일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11월 말부터 아리랑합창단과 태권도반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매일 볼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다.



2010년 마지막 날, 우리는 학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루고 미루던 무대벽화 그리기를 시작했다. 하루 전날 밑그림을 그리고 12월31일 아침 9시부터 색칠을 시작해서 5시쯤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다.

우리는 휴일이 아닌 평일에 페인트칠을 할 수도 있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2월31일 새해 연휴에 작업을 했다.

지난번 한국 방 페인트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색칠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페인트로 글씨를 쓰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작업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Before



본격적으로 페인트 작업에 들어가기 하루 전인 2010년 12월 30일,
우리는 학교 수업이 끝나고 흰 바탕에 밑그림을 그렸다.
우리의 컨셉 '지구+ chirathiwat School+자연...'



2010년 마지막날

아침 9시부터 시작된 페인트 작업은
우리가 예상했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완성되어갔다.

하지만

역시나,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학교이름을 새기는 작업에 오~런 시간이 소요되었다.

점심을 먹은 뒤 글씨를 새기는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아이디어를 짜내어..

두꺼운 종이에 글씨를 파서 페인트칠을 시작했다. 모든 팀원이 달라 붙어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겼고
조금의 보정이 필요하긴 했지만 ㅋㅋ

결국 우리는 'chirathiwat' 페인트로 새기는 작업에 성공했다. ^^



After



완성

중간보고

2010-12-09

11월부터 수 차례 미뤄졌던 중간보고를 12월 9일에나 하게 되었다. 그 전까지 마을에 머물렀기 때문에, 동영상 편집 등 몇몇 준비에 제약이 있었지만, 보고서준비, 프리젠테이션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었다. 그리고 YMCA로 돌아와 다소 부족했던 동영상과 프리젠테이션을 밤새 준비했다.

프리젠테이션 시작 한 두 시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 YMCA 스태프들과 보드멤버들만 참석하는 줄 알았던 우리는 람퐁과 산캄팽의 고등학생들과, 치앙마이 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서애숙선생님 등 많은 사람들이 왔다.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놀랐고, 남은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다소 부족한 프리젠테이션이었지만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몇 가지 질문과 잘하고 있다는 격려, 조언을 아끼지 않고 해주셨다.

특히 한국어 선생님이로 치앙마이에 와 계시는 서애숙 선생님은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 봉사단 이름을 달고 와서 “just fun”하다가 가는 학생들인 줄 알았다가 이번 중간보고를 보고 우리에게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셨다.

중간보고를 준비하면서 우리 스스로 3개월간의 활동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더불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참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며 3개월을 보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기도 했다.



2010-12-16



우리는 메조대학 관광학과 학생들과 함께 한국여행에 대해 소개하는 활동을 가졌다. 원래 17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갑작스레 16일로 당겨지는 바람에 촉박하게 준비할 수 밖에 없었다.

준비시간이 얼마 없어서 단순히 한국을 소개하고, 홍보동영상을 상영하는 정도로만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좀 더 의미 있는 활동을 가지기 위해, 관광책자나 TV에 나오는 한국이 아닌 실제 한국의 모습,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한국의 모습을 소개하기로 했다. 더불어 태국학생들이 생각하는 진짜 태국, 사랑하고 싶은 태국에 대해서도 들으며 생각을 공유하기로 했다.

우리는 태국인 학생들로 이루어진 오전세션과, 중국유학생들로 이루어진 오후세션을 맡게 되었다. 오전세션의 경우, 학생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후세션의 경우 컴퓨터가 말썽을 일으키는 바람에 조금 당황했지만 전체적으로 즐거운 분위기에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요즘 태국에서는 [Hello Stranger]라는 영화가 유행인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반대로 쇼핑문화나 개고기 등 지나치게 피상적인 인상만 늘어있기도 했다. 반대로 한국에서도 태국을 떠올릴 때, 푸켓의 화려한 리조트나 고급 마사지샵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서로가 정말 소개하고 싶은 여행지를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시간적인 문제, 언어적인 문제가 있었고, 더불어 수업진행을 돕는 스탭인 P'yo와 미리 의견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동행했던 자원활동가인 Mr.Norman 할아버지가 우리의 다양한 시도를 보면서 우리가 "Good way"로 가고 있다고 말해주었고, 우리 역시 단순히 쉬운 길로만 가지 않고 한번 더 생각하면서 의미 있는 활동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덧붙여서, 매일 초등학생, 중학생들과 함께 하다가 오랜만에 같은 또래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김우겸 단원은 태국 4개월 생활 동안 가장 가슴 떨린 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What do you think about Korea?



What is the meaning of travel?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진짜 한국의 모습

서로가 정말 소개하고 싶은 여행지를 공유하는 시간 :)



Chiang Dao

2010-12-18~2010-1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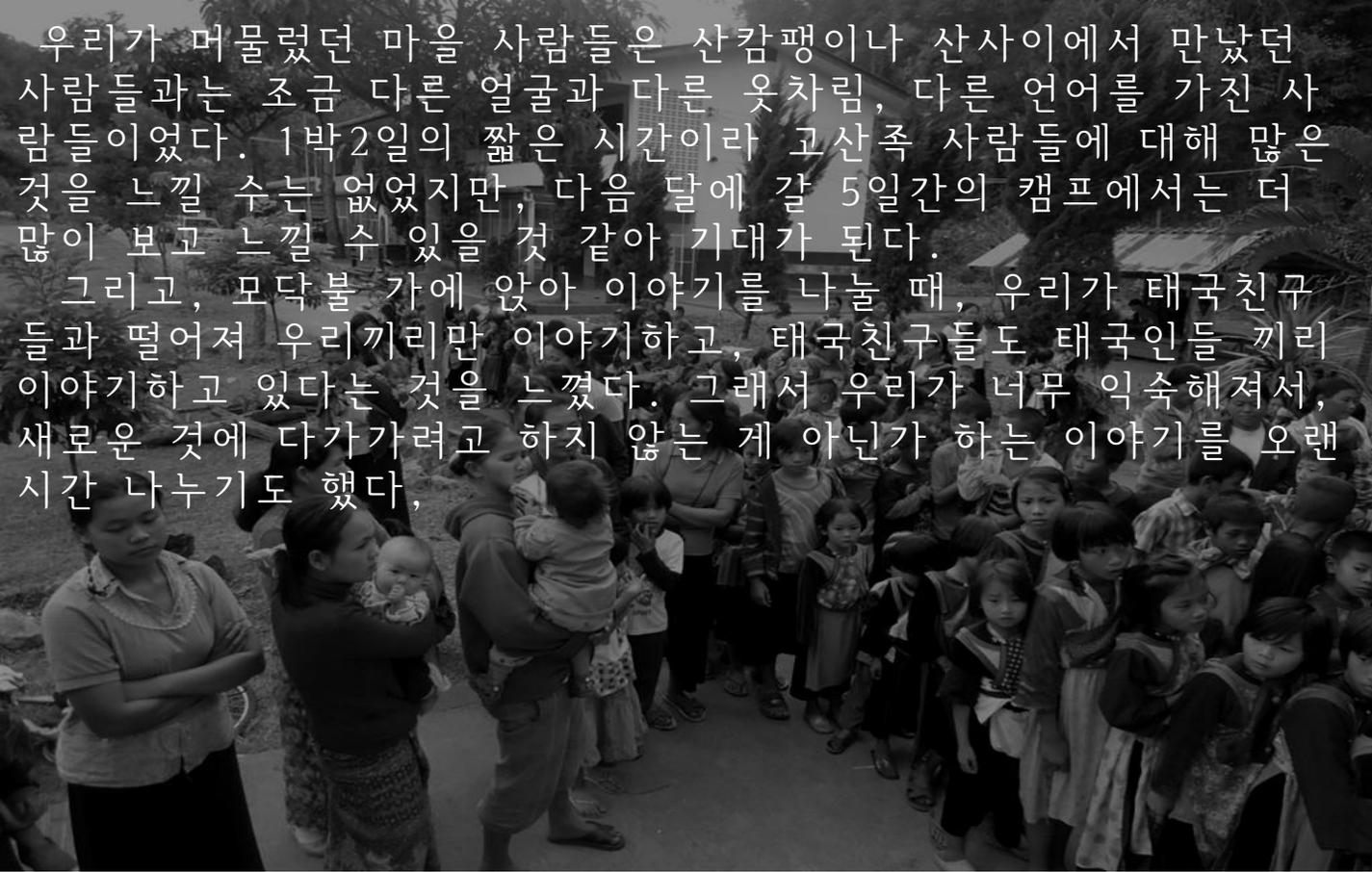
우리는 람팡에서 온 대학생친구들과 함께 국경지대에 위치한 치앙다오로 1박 2일 캠프를 떠났다. 캠프의 목적은 YMCA와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해 온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옷을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우리는 일본과 치앙마이 곳곳에서 기증받은 많은 양의 옷을 엄청나게 큰 트럭에 싣고 치앙다오로 출발했다. 청룡열차 타는 기분이 들만큼, 오르막과 내리막을 3시간 동안 반복하고 나서야 치앙다오에 도착할 수 있었다. 짐을 정리하고 텐트를 치고 있을 때 쯤부터 많은 마을사람들이 기부활동을 할 학교로 모여들었다. 우리는 준비해 간 옷들을 정리하고 마을 사람들을 맞이했다. 처음에는 줄을 서서 우리가 나눠주는 방식이었는데, 조금 지나자 사람들이 앞다퉈 몰려들어 혼잡해졌다. 하지만 곧 P'yo와 김우겸 단원이 남대문시장 상인처럼 “쓰아 르앙 수어이 티쑤(노란옷 제일 이빠요)”이라고 말하는 등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켜 무사히 기부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1시간여 진행된 기부행사가 끝나고, 우리와 대학생 친구들은 저녁과 캠프파이어를 준비하거나 마을사람들과 축구를 즐겼다. 밤이 깊은 후에는, 모닥불에 둘러앉아 돼지고기 바비큐와 구운 감자를 먹으며 밤을 보냈다. 치앙다오에서 “치앙”은 도시, “다오”는 별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래서 권윤경단원은 “별의 도시”에 가기 전 엄청난 기대를 했지만, 날이 흐려서 결국 별은 구경도 못하게 되었다.

우리와 함께 한 8명의 대학생들은 식사와 숙박을 모두 개인이 해결하면서 이 캠프에 참여했다. 사람들에게 옷을 나누어 주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먼 거리를 자비로 온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국 후속활동을 할 때 과연 자비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뜨거운 태양과 함께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이브

2010-12-24 Christmas Party at Jakkam

크리스마스 이브, 람퐁 Jakkam스쿨의 크리스마스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는 중국어과 학생들과 함께 부스 하나를 운영했는데, 한복과 태권도복 체험을 준비했다. 부스 안은 캐롤을 한국어로 적어 꾸미고, 부스 앞에 파라솔을 설치해, 그 동안의 활동사진과 한복, 태권도복을 전시했다. 부스설치가 끝난 뒤, 한국가요를 틀어놓고 학생들을 기다렸다.

오전 짧은 시간 동안 진행한 행사인데,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관심을 보였고, 30명 이상의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많은 부스와 큰 무대에 놀랐다. Jakkam스쿨은 고등학교인데 축제규모와 분위기는 한국의 대학축제와 비슷한 정도였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의 고등학교처럼 시험준비만 하는 학교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게끔 기회를 만들어주는 학교가 있다는 것에 부러움을 느꼈다.

JKY는 Jakkam스쿨의 중국어과 학생들로 이루어진 봉사활동 단체인데, 9월달에도 함께 한국문화수업을 하는 등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다. 이날도 우리가 도착하기 전 태극기와 한복그림을 이용해서 부스를 미리 꾸며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 1월에 JKY학생들과 캠프를 갈 예정인데, 기대가 된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남자한복이 없어서 태권도복으로 대신했다는 점이다.



YMCA 크리스마스파티 2010-12-25

크리스마스 당일, 우리는 산캄팜YMCA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여했다. 우리 뿐 아니라 자원봉사 선생님들, Mr.Norman 할아버지가 각각의 교실에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아이들을 맞기에 앞서 한국방을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춰 꾸몄다. 한국방에 그려진 한옥 지붕과 섬돌에 눈을 올리고 한국의 크리스마스 풍경을 출력해 전시하고 그 외에 여러가지 크리스마스 장식을 이용해 방을 꾸몄다.

그렇게 꾸며진 한국방에서 우리는 투호놀이, 눈만들기, 크리스마스 카드 쓰기를 아이들과 함께 진행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의 반응이 좋아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더 뽑기까지 했다. 이런 반응에 우리도 신이 나서 오후시간까지 준비하고 있던 차에, 오전까지만 예정된 행사였다는 말을 듣고 조금 아쉬웠다.

대다수의 국민이 불교신자인(심지어 YMCA직원까지 불교신자) 태국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이 신기했다.

그리고 이 날, 아시아YMCA에서 일하시는 인도분과 그 가족이 방문해서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함께 했다. 그 분이 지난 달 스리랑카에서 라온아띠를 만나보셨다는 말을 하셔서 놀랍고 더 반갑기도 했다.



크리스마스 카드 쓰기

반팔임과 싯카평 YMCA에 놀러온 많은 아이들과 함께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파티



눈 만들기



투혼 던지고 크리스마스 선물 받기



P.S) 라온아띠 4기 랑카팀, 이분들 기억하시죠?

Visa Trip

12월 4일 ~ 12월 7일

조준희 : 관광객이 된 기분이었다.

김유겸 : 라오스 카지노를 방문해 보고 싶었다.

권윤경 : 배를 타고 라오스로... :)

박소영 : 버마에서 한국인을 많이 만났다.

김현주 : 버마에 다시 한 번 가보고 싶다.



첫째 날

왓 링쿤 (화이트템플)
치앙라이 YMCA 도착
짐 풀고 점심식사 후
YMCA & 구순구개열 프로젝트 소개
워킹스트리트





돌잔치 날

비자연장을 위해 버마에서 3시간 체류
버마 시장 구경과 주변 관광지 구경
골든 트라이 앵글
나이트 바자





넷째 날

비자트립 마지막 날, 우리는 치앙라이 초등학교에서 준비해 간 소품을 이용해 '풍선 터뜨리기' '2인3각' 게임을 하며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전 활동을 마치고 여러 선생님들과 다같이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아이들이 준비한 간단한 퍼포먼스를 보며 미리 준비해 간 과자를 함께 나누어 먹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치앙라이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치앙마이를 향해 출발했다.



우리들의 이야기

라운애피4기 태국팀

권문경/김무겸/김현주/박소영/조준희





권윤희 이야기

시간은 갈수록 빠르게 흘러 길것만 같던 2달의 홈스테이가 끝나고, 다음달이면 5개월의 일정이 끝난다. 정신없이 했던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할 시간이다. 이곳 태국에서 한 활동이 나에게 있어 어떤 의미가 될까? 홈스테이 엄마들과 동생들에게 우리는 어떤 의미가 될까?

엄마가 한국에 가기 전에 들려서 꾸어이피아오(국수)를 가지고 가서 한국 엄마에게 요리 해주라고 하셨다. 그런 말을 들어서인지, 요즘 종종 한국가족과 태국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장면을 상상하곤 한다.

가족들은 떠나기 한참 전부터 한국에 돌아가면 태국 가족을 키통(그리워하다) 할거냐고 계속 물어봤었다. 몇 년 후에도 매일매일 생각하고 그리워하면서 눈물짓지는 않겠지만. 기쁜 소식이 생길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더 생긴 것 같다.

중간평가를 하러 오신 송실장님께도 나도 모르게 "카!" 라고 대답하는 나를 보면서 이 어색한 태국어가 이제 익숙해져버렸구나 라는게 느껴졌다.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한동안 한국어 연습을 다시 해야겠다... 그리고 마을에서 찢 살도 빼야할텐데...ㅜㅜ



김우경 이야기

2달간의 홈스테이가 끝이 났다. 낯선 시골 태국인 가정에서 잘 적응하며 살 수 있을까 라는 걱정과는 달리, 친가족처럼 너무나 많은 정이 들어 작별인사를 하는 날, 모두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떠나는 날은 마침 한국에서 중간평가단이 온 날이기도 했는데, 송진호 실장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마치 이산가족 상봉하는 장면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그만큼 헤어지기에는 너무나 많은 정이 들어 아쉬운 마음을 눈물로 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것 같다. 각자가 생활한 가정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의 가족, 옆집 사람들까지 모두들 한식구로 느껴질 만큼 이 마을 사람과 많은 정을 나누었다. 집에 엄마가 계시지 않아 배가 고플 때, 아무렇지 않게 옆집에 놀러 가 밥을 얻어 먹으며 웃을 수 있는, 딱딱한 아파트 촌의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2달간의 태국 시골마을에서의 삶은 나에게 있어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인사를 하고 작별인사를 하며 학생들과 모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말했다. 30살이 되면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으로 꼭 다시 놀러와 인사 드리겠다고... 그저 인사 치레로 하는 말로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난 이 약속을 꼭 지키고 싶다.



김현주 이야기

12월, 처음 두 달이라고 들었을 때 엄청 길게만 느껴졌던 홈스테이가 끝났다. 울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빠의 마이빠이 마이다이 (안 갈 수는 없는 거지), 학교 아이들의 탐마이 평 끄랍 까올리 (왜 꼭 한국에 돌아가야 해)라는 말들에 그 생각은 무너졌고, 엄마, 오빠, 심지어 아빠까지 온 가족이 우는 상황에서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매일 똑같은 대화 내용이어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도 행복했던 두 달 동안의 내 마을, 내 집, 내 가족.

어느새 이 곳에 온 지 4개월, 이제 돌아갈 날은 한 달 남짓 남았고, 그 중의 반을 함께 했던 사람들과 헤어졌다. 그리고 한 달 후면 나는 5개월 간의 기억만을 가지고 이 곳에서 떠난다. 어느새 익숙해진 음식, 거리, 언어 그리고 사람까지 모두 다 이 곳에 남겨둔 채로.

처음 한국에서 떠나올 때에는 되려 담담하게 떠나 왔었다. 23년 간의 모든 것을 남겨둔 채로 떠나와야 했지만, 5개월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때에 했던 생각은 '5개월의 기약을 남겨 놓고 떠나는 것과, 5개월 동안의 전부를 기약 없이 놓고 떠나는 것. 그 때에도 이렇게 조금은 담담하게 떠나올 수 있을까.' 였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 곳에서 만날 그 사람들도.'라는 생각까지. 처음에 했던 이 생각을 이룬 것 같아 기쁘면서도, 이젠 내가 힘들다. 벌써부터 한 달 후가 걱정된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나는 그 동안 이들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었나. 우리의 5개월은 우리에게, 서로에게 어떻게 남을까.



박소영 이야기

아직도 가슴이 먹먹하다. 바로 어제, 두 달여의 홈스테이가 끝이 났다. 전날 밤 내 동생 판이 눈물을 보일 때에도 내가 같이 울어버리면 이 아이가 더 슬퍼할 것만 같아서 눈물을 꼭 참았다. 하지만 1월6일 헤어지는날 엄마의 눈물을 보는 순간 그 동안 애써 부정해 왔던 헤어짐이란 단어가 와 닿았다. 엄마도 울고, 내 동생 판도 울고, 나도 울었다. 그렇게 2달 동안 뜨겁게 정을 나눴던 그들과 이별을 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 나는 하나 둘 익숙했던 태국에서의 생활과 이별을 해야 한다. 앞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한달.4개월 이란시간을 어떻게 정리 해야 할지, 남은 한 달을 채워야 할지 잘 모르겠다.

얼마 전 현지스텝 P'Yo가 말하길 '몇 장에 걸쳐 빼곡하던 라온아띠4기 태국팀의 스케줄이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말했다. 이제 정말 남은 스케줄이 몇 개밖에 남지 않았다. 맨 처음 이곳 태국과의 만남이 떠오른다. 첫 미팅 때 우리에게 살포시 내밀던 빼곡한 스케줄 표. 사실, 빡빡한 일정에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4개월을 살아낸 지금, 나에게 라온아띠 태국팀은 내 평생 해보지 못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고, 그 경험들 속에서 나는 참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P.S) 남은 한달, 사고 치지 않고 잘 먹고, 잘살다 돌아가겠습니다.^^



조준희 이야기

두 달 동안 함께 한 가족들, 이웃사람들, 학교 아이들과 헤어졌다. 아직 완전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돌아섰지만 반대로 완전히 마을에 머물 수도 없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서로 눈물을 보였던 것 같다. 떠나기 하루 전, 옆집 아저씨가 만나면 헤어지는 법, 이라는 말을 해주셨다. 그런 말을 듣기 전에도 헤어짐에 연연하기보다 순간순간을 담아가자고 늘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헤어짐이 닥치니 쉽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에서 보낸 두 달 동안, 담아가기 벅찰 정도로 많이 배웠고, 사랑도 많이 받았고 추억도 많이 만들었다.

비단 태국사람들 같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을 만나면서 항상 그 사람이 느끼는 기쁨이나 아픔을 최대한 공유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었다. 그래서 그 동안 문화교류활동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런데 홈스테이를 하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 것 같다.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걸 공유하는 사이가 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태국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어느 정도 같이 볼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 시각이 “짜바이 짜바이”하는, 여유를 가지는 시각이든, 지극히 주관적인 가꿈은 옳지 않은 선입견이든. 처음에는 단순히 음식이 맛있는지, 마을생활이 재미있는지, 같은 말들이나 서로가 이해할 수준의 가벼운 농담들만 반복해서 나누다 이제서야 입으로, 표정으로 속마음을 나누기 시작했다고 느끼기 시작했는데 떠나게 되니 아쉬움이 더 크다. 아무튼, 학교를 떠날 때 나를 따르는 추종세력(?)들로 인해 다시금 나의 인기도(비록 초등학교까지만 통하지만)를 느낄 수 있었다.

네 번째 보고서 끝
감사합니다

2011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한달뒤에 만나요